



## 간추린 청렴 소식

### [1] 해남지청, '홈페이지 청렴공유게시판' 개설



해남지청(지청장 조남철)은 '20. 6. 29. 해남지청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소식란에 '청렴공유게시판'을 개설하였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기 위해  
해남지청의 청렴 소식 및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 [2] 창원지검, '청렴 포스터 공모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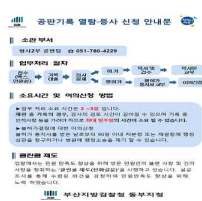


창원지검(검사장 문홍성)은 '20. 6. 각 부과별 팀을 구성하여 '청렴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채우는 청렴, 많아진 세상'  
대상작을 비롯한 작품들은 창원지검 청사 곳곳에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

### [3] 부산동부지청, '청렴·감찰 T/F팀 간담회' 개최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신자용)은 '20. 6. 23. '청렴감찰 T/F팀 간담회'를 개최하여 1분기 클린콜 결과를 점검하고 2분기 청렴시책 이행 현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청렴 설문조사, 클린콜 제도 안내문 비치 등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부산동부지청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

### [4] 영월지청, '7월 청렴문자' 발송



영월지청(지청장 류국량)은 '20. 7. 15.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직원 청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쇼펜하우어)  
- 영월지청 '7월 청렴 메시지' -



## 알아두세요

### 반부패 청렴 O-X 퀴즈

'반부패 청렴 의식'은 공직자의 기본덕목  
이라는 것! 다들 알고계시죠?  
간단한 문항의 OX퀴즈로 청렴 소양을  
확인해보세요!



-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 )
-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 )
-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 ( )

정답 1. X, 청탁내용의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청탁행위 자체가 금지됨 / 2. X,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 3. O,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전달매체에 관계없이 외부강의에 해당



칭찬합니다!

### 2분기 클린콜 우수직원 선정

'20. 7. 20. 대검 감찰부 클린콜센터에서는 일선 청클린콜 조사 대상 업무(기록열람등사, 압수물 가환부, 기소중지 재기,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활동 우수 직원 4명을 선정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서울고검 편순영    안양지청 천아를  
포항지청 조재희    공주지청 이미승



아래는 클린콜 민원인 칭찬의견 중 일부입니다.

- 열람등사를 접수하면서 판결문만 발급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담당자께서 어떤 부분까지 가능하다고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잘 처리해주셔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 최고로 친절했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다보니 늦게 도착해서 금요일 저녁 6시30분이 넘어서까지 복사를 하게 되어 걱정했는데 담당자분이 먼저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해주며 복사를 같이 도와주었습니다.

청렴 상식이 쑥쑥!

##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프로그래머로 경력을 쌓다 늦은 나이에 전산특채로 소방공무원이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리팀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팀의 주요업무를 도맡던 팀원 '최반장'이 소주 한 잔을 권하며 알 수 없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최반장은 청년에게 "비예산이니"하며 팀장님이 이상한 것을 주문하면 절대 못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꼭요! 명심하세요" 라고 하였지만 청년은 어리둥절 하였습니다.

얼마 뒤 최반장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경리팀장이 그를 불러 "곧 추석이고 비예산 들어갈데가 많으니 정보통신 공사를 계획하고 300만 원만 만들어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청년은 대답하지 못해 얼버무렸고 이후 경리팀장과 팀원들은 그를 싸늘하게 대했습니다.

청년은 모르는 척, 거절 아닌 거절을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하였으며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해 힘겹게 들어선 공직생활을 그만 둘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고민을 최반장에게 털어 놓았고 곰곰히 생각을 하던 최반장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꼴 나요"라며 두려워하는 청년이 용기를 내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최반장은 서내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었고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날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면서도 늘 청년이 옳은 길을 가도록 조언을 해주었으며 청년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뒤 경리팀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최반장도 팀장과 같은 소방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년 뒤, 최반장은 청년을 찾아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최반장은 세상을 등졌고, 대대적인 감찰과 조사를 받은 수십명이 중징계와 사표로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최반장의 눈물을, 잘못된 선택을, 끝없는 고통과 후회를 기억하며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고 그를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 더 용기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괴로워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나는 평범한 아들, 남편, 아버지이고 소방공무원으로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옳은 선택을 할 것이다. 두려워도 용기를 내어 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두렵지만, 나는 이제 할 수 있다.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올바른 소신'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 공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아닐까요?

✓ 사례 출처 : '18년 권익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우수상 수상작 장경수 - 할 수 있으니까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오른쪽 그림은 제주지검의 청렴 마스크트 '청콩이'입니다.

조선초기, 제주목사를 지낸 청백리 이약동 선생과 제주 백성들의 일화에서 비롯된 위 마스크트는 ( )채찍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 ① 말                      ② 소                      ③ 양

※ 힌트 : Monthly청렴 2020년 7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0. 8. 17.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7월 정답은 ② 뉴욕타임즈 법칙이었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축!  
당첨

이○○(대구), 이○○(경주), 엄○○(부산), 김○○(상주), 안○○(인천), 배○○(서울서부), 심○○(안산), 김○○(영동), 최○○(원주), 이○○(외부)



## 민원인의 목소리

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고 확인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하나 문자로 보내줄건데"라고 하였으며 나중에 "그런 팩스가 들어온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를 보냈으니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민원인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같은 내용이라도 '접수현황은 문자로 송부해 드리니 전화를 따로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내해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을 수 있다는 옛 속담을 되새겨야겠습니다.

두 번 방문해야 되에도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며,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서 모든면이 매우 좋았고 고맷습니다.

포항지청 열람등사 담당자의 친절함을 칭찬하는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

